

#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 7 回

第 6 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 時：1991年 12月 2日 (月) 午前 10時  
場 所：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第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6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都市計劃施設(高速道路)決定에關한意見聽取의件
4. 西南部生活圈基本計劃報告의件
5. 1991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 審議된 案件

- |                                 |      |
|---------------------------------|------|
| 1. 大田直轄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1 面  |
| 2. 大田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2 面 |
| 3. 都市計劃施設(高速道路)決定에關한意見聽取의件      | 14 面 |
| 4. 西南部生活圈基本計劃報告의件               | 22 面 |
| 5. 1991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 25 面 |

1. 大田直轄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1時 16分 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6次 産業建設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30여회에 걸쳐 委員會를 개최하여 청원등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민원사항등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110萬 市民들이 낸 세금을 한푼 이

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게 92年度 豫算案을 심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建設住宅局長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建設住宅局長 鄭春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李秉奎 委員長님과 그리고 委員 여러분, 大田直轄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電氣, 電話, 上水道, 都市가스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한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공사를 效率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條例改正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도로굴착 후 복구시 원인자가 施行함으로써 복구시기가 지연되고 또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부실한 복구 공사가 되는 경우에 있어 이를 原則的으로 관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복구공사를 완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첫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 복구 면적은 사방 0.5m씩 되어 있고 포장 절취기를 사용할 경우는 0.1m 산출하던 것을 절단기 사용을 義務化하며 복구 면적을 0.15m 산

출하도록 하고 도로 여건에 따라서 1차선이 3.5m 되는 경우에는 전면 수선하는 것으로 산출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보도 구간은 굴착 부분은 복구하던 것을 4m 미만은 전면을 복구면적으로 產出하여 도로의 침하방지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事項입니다.

둘째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복구면적을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로 구분해서 간선도로는 현행 조례대로 보조기층을 50cm 기층을 10m 표층을 5cm로 하고 지선 도로는 보조 기층계를 5cm 이하로 하되 동결 심도를 유지하도록 세분화하여 보다 經濟的 복구가 되도록 보도 굴착시 모래 50cm를 「콘크리트」 5cm 모래 3cm로 강화하도록 하여 보도블럭의 침하를 최대한로 防止하여 市民 불편을 最少化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시 원인자가 시행함으로써 복구 시기의 지연 또는 專門性的 결여로 專門業體를 지정, 완벽한 복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目的이 있습니다.

이에 大田直轄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大田直轄市議會에 부의하오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시 원인자가 施行함으로써 복구시기가 지연되고 또는 專門性이 결여되어 부실한 복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原則的으로 관리청에서 施行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시 단면을 合理

的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大田直轄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別添)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專門委員長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議員 李雨錫 專門委員 李雨錫입니다.

大田直轄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사항 별첨)

○委員長 李秉奎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4m이상인 도로는 예를 들어 6m도로인 경우에 그러면 6m에서 그 부분 만큼만 깨내고 거기는 3m 50cm만 한다는 애집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6m 도로에서 3m을 쪽 파 나간다고 하면 양쪽으로 15cm씩 가산을 하면 3m 30cm를 쪽 나가면서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그 면적을 다 받아낸다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보면 3m 50cm 1차선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게 있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3m 50cm 미만의 1차선인 경우에는 다 받아 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3.5m 미만인 경우는 20cm를 했던 1m를 했던 3.5m 차선 하나를 완전히 복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4m 미만인 경우는 4m에 1m가 됐든 2m가 됐든 4m 전면 도로에 대한 보수비를 다 받아 내는 거예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의 두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장 여건은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를 들어 암반 같은 것을 파내 가지고 밑바닥이 제대로 기초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께를 두껍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事項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런 條項이 들어가면 나쁘게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기존 차도블록이 제대로 깔려져 있는데는 15cm나 10cm를 다 썩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一律적으로 5cm를 썩어야 할 데가 있고 또 「아스콘」 두께는 5cm 썩으면 5cm를 그 鋪裝道路의 과거의 여건에 따라서 다 5cm 썩우고, 보조기층의 두께를 조정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改正條例案 5條를 보면은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물 손해복구는 도로 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경미한事項, 예를 들어서 전기 「케이블」 공사를 긴급하게 했거나 할 때 그런 것은 공사한 사람들이 바로 復舊를 해야지 그걸 파 놓고 관리사업소에

말기고 며칠씩 기다렸다 復舊하는게 不合理하기 때문에 그런 유보 條項을 삽입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하수도 공사현장을 가끔 지나다 보면은 굴착하고 흙관을 묻을 때 연결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작업을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틈새가 벌어져 있어도 그냥 흙을 덮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안좋았는데 그러한 것은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20m 이상 도로는 道路管理事業所에서 직접하고, 20m 미만은 각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總體的인 관리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공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감독은 하고 있지만 저도 現場에 가서 신분을 안밝히고 이걸 좀 誠意있게 해야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누구냐고 물어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身分을 밝히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손 툇툇털고 나오면서 당신이 하세요.

우리는 일 못해요 이러고 가는 境遇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指導 監督을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條例案 第4條 별표 1 다항 중 입법예고한 결과를 보면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복구 면적을 실제 복구면적에 사망 각각 0.1m씩 가산하여 產出 한다를 0.5m로 변경을 요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道路管理事業所와 서구청에서 요망한 것

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0.15m씩으로 수정 됐습니다.

왜 실무부서에서는 0.5m으로 변경 요망을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0.15m으로 수정개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道路管理事業所에서는 그전처럼 인력 터파기도 인정을 하는 경우로 알고서 계속 그렇게 넣어 달라는 애기였었고, 저희는 인력 터파기는 안되니까 「카터」기를 사용해야 된다. 「카터」기 사용하는 것은 義務的이다.

그러면서 도로 굴착하는 면에서 15cm까지만 떨어져 가지고 전구간을 다 받아 내는 걸로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전에도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0.1m씩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수정, 개정하면서 0.5m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참고사항에 요망을 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한 說明을 듣고 싶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 도로보수계장이 具體的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建設住宅職員 이강규 도로보수계장 이강규입니다.

徐委員님이 말씀하신 입법예고시에는 50cm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입법예고시에는 10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m에 대한 이의를 道路管理事業所하고 서구청에서 50cm로 늘려달라고 하는 얘기는 도로복구비를 50cm를 늘리는 과정에서 많이 받아 가지고 예치를 해서 復舊를 하겠다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100m까지 받아야 될 것을 50cm까지 받아서 복구비를 많이 받은 다음에 復舊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취지이고 저희들이 예고한 것은 10cm로 예고를 한 事項입니다.

50cm와 10cm의 차이는 50cm는 인력으로 뚫을 때는 일정하게 자르지를 못하는 과정에서 퍼져나가는 「아스콘」의 손실을 50cm로 본 것이고 절단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절단한데서 10cm만을 復舊를 하면은 절단기가 일정하게 「커트」를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해서 10cm로 된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0.15m로 했을 때 시행상의 問題點은 없는 겁니까?

○建設住宅職員 이강규 절단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問題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鋪裝道路면 굴착복구 기준에 보면 지선도로에는 보조기층 50cm 이하로 하되 동결심도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결심도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보조기층을 몇 cm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동결심도는 全體的으로 포장두께가 보조기층 50cm 기층 10cm 표층 5cm해서 65cm 大田地域의 동결심도가 62~3cm에서 부터 65cm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大田地域은 포장두께를 65cm로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선도로에 분명히 보조기층을 간선도로와 같이 맞춰서 해준다고 명백히 명시를 하든지 해야지 65cm이상이라고 봤을때는 지선도로에도 問題點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동결심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30cm

만 보조기층을 깔으면 問題點이 생길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명백하게 명시를 해야 되겠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선도로의 경우는 도로면에 鋪裝道路라고 하는 것은 습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수명입니다.

그래서 넓은 도로에서는 보도폭이 넓기 때문에 가운데에 물이 떨어지면 바로 도로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지만 지선도로는 배수시설이 잘돼있기 때문에 보조기층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道路를 設計한다는 것은 현장의 「CBR」 시험이라고 해서 지지력 시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포장두께를 보조기층을 결정하고, 보수하는 道路는 과거에 보수해 놓은 道路의 포장 단면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보조기층을 결정을 합니다.

막연하게 보조기층을 一律的으로 50cm 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 「CBR」 시험을 해서 두께를 결정합니다.

○徐允官 委員 오정동에 가보면 한남대육교 아래쪽에 보면 영진건설에서 철도공무원 「아파트」를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道路를 굴착을 해 가지고 아직도 보수공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내주면서 주위에 도로 굴착한 부분이 보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허가를 내줍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구청에서 조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措置하겠습니다.

○吳熙重 委員 우선 이것은 書面으로 資

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해 가지고 「아스팔트」하고 간선도로, 지선도로, 「콘크리트」 간선도로, 지선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기층 50cm나 기층 10cm 표층 5cm등은 도로를 新規로 開設하거나 비포장도로를 포장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기준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닙니다.

○吳熙重 委員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는 部分은 우선 道路復舊에 관한 條例 改正案인데 대전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종류와 그러한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비포장도로를 포장했을 때 기층이나 보조기층이나 표층을 어떻게 포장을 하는 건지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하고 區分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서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또는 소방도로의 명칭이 있으면 분류해서 어떤 것이 간선도로고 어떤 것이 지선도로고 어떤 것이 소방도로인지 표시를 해 주시고 또 이러한 道路 事業을 할적에 발주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관계 규정을 같이 얘기를 해 주시고, 앞에서 徐允官 委員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에서 50cm 사방확대해서 복구를 해라 구청에서 또 道路 管理事務所에서, 그런데 그걸 당초 요구한 0.1m에서 0.15m으로 했단말이에요.

주무계장이 답변할 事項이 아닌데도 답변을 하고 지나갔습시다라는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꼭 50cm나 15cm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확실한 復舊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인력으로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방 50전이면 될것을 한 100전도 깨질 수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10전이든 15전이든 50전으로 확대해 가지고 복구비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0.15m 확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통과만 되면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吳熙重 委員 그러면은 그 0.15m도 굴착 면적에 관계없이 복구 기준 면적에 관계없이 결국은 계산상으로 좀 費用을 더 받아서 확실하게 復舊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더 받은 費用은 정산을 해서 환불을 해줍니다.

○吳熙重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복구 계장님의 충분한 費用을 받아서 復舊한다는 얘기도 설득력이 없고 「커트」기로 정확하게 사방 1m를 잘라도 균열이 오기 때문에 또 15cm를 늘려서 잘라 내고 다시 복구를 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도로를 신규로 개설을 하거나 비포장도로를 포장하거나 굴착에 의해서 다시 복구를 했을 때 기준이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吳熙重 委員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罰則 規定은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코아」를 떠서 부실공사 지적이 되면 재시공을 시켜야 됩니다.

○吳熙重 委員 예를 들어서 全體가 그런 표본이 추출이 된다면 30km든 20km든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할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당연히 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공정마다 公務員들이 「체크」를 하는데  
전구간에 부실 공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吳熙重 委員 그러면 포장에 되어있는  
곳에 「스폰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왜 公務  
員이 가서 감독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남  
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밑에 노반  
이고 그 위에 보조기층을 50cm 집어넣습니  
다. 그런데 옆에 산이 높아가지고 지하수가  
밑에서 솟아 올라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

○吳熙重 委員 그런 측정은 안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측정은 하지만 수  
맥이 움직이는 경우가 생겨서 「스폰지」 현  
상이.....

○吳熙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복구 기준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벌칙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벌칙규정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吳熙重 委員 그러면 거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公務員은 監督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나 태만이 될테고 시  
공업자는 기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된거고 한테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없다면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부실 시공을 했을  
때는 건설업 법에 의해서 建設部 長官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제 지역에 그런일이 있었  
어요.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

인데 그것이 자꾸 깨져가지고 덧 씌우기 공  
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한지 3개월도 못 가서 밑바닥  
이 다 드러나 버렸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의 벌칙규정 이것부터 조례 안  
에 넣을 수 있다면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  
각을 합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他 市道에 알아보  
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시멘트」 포장에 되어 있  
는 위에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했  
는데 3개월도 못가서 전구간이 전체가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市에서 그런 業體에 대해서 고발  
조치 한번 해본일이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金委員님께서 그 위치가 어딘지 알려  
주시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  
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은 구청장한테도 건의  
했던 사실이고 市民과의 對話에서도 얘기했  
던 사실입니다.

그것한번 고발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게 어디냐 옛날에는 그게 국도였습니  
다. 도마2동의 구 도로인데, 지금은 조그마  
한 뒷골목이 되고 말았지만 거기 가보면 밑  
에는 「시멘트」 포장이고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가차없이 고발을 해서, 아니면  
1年동안 공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  
야지 그런 일이 재발이 안됩니다.

○宋錫贊 委員 요즘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어떠한 모순  
점이 있느냐 하면 보조기층 재료를 쓰는데 모

래나 자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흙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고 가장자리는 20cm정도 되는데 가운데 정도는 5cm, 10cm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公務員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必要性이 있는데 위치는 죽동에 포장한 것도 있어요. 관평, 거기 어제가 봤는데 보조기층 재료를 흙으로 채우고 있더군요.

업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자기들은 하청업자라 細部的인 설계를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설계도와 비교해서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현재 다루고 있는 條例案에 문제가 있습니다.

1m각이면 1m각에 대한 것만 條例에 넣어가지고 받으면 되고 또 받는 方法도 제가 볼 때는 마땅치를 않은거예요.

1m각을 끊었으면 1m각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보상하고 차라리 그 공사금액에 1m각을 끊어서 복구를 하는데 10%가 됐든 20%가 됐든 이것은 아주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한 추가금액을 받는 方法 차라리 그것이 땀땀하겠지요.

그런데 감독기관의 공사를 시공시키고 중간검사를 하고 준공을 하는 과정까지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기초공사할 때는 반드시 기초 철근을 깔았을 때나 착수했을 때 기초공사에서 검사를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중간검사를 한번 틀림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게 준공검사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는 준공검사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공사가 됐든 예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떤 공사를 했을 때 完璧하게 그 뒤에 마감공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차를 타고 다녀봐도 地下商街工事を 하고 도출되어 있는 돌을 붙인 데가 있고 돌을 붙인 옆에 「아스팔트」를 입히고 했는데 그 돌 붙인 귀퉁이에 「아스팔트」가 묻었는데 「콘크리트」가 묻었거나 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것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특히나 보수문제는 포장공사 「콘크리트」공사가 됐든 그 이음매에 대해서 完璧하게 시공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감작업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얘깁니다.

제가 外國에 가서 포장공사 땀질하는 과정을 주시해 본 일이 있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때운건지 안 때운건지 모를 정도로 깨끗이 때우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1m간격이면 거기에 대한 것만 보수를 받고 거기다 그 외에 마감비라고 해서 10%나 20%를 가산해서 차라리 마감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이런 보수를 받고 남으면 다시 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合理的이고 合法的이고 범집행자도 融通性を 충분히 갖고 큰소리 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을텐데. 形式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로 하는데 현재 모든 검사는 公務員이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수궁을 합니다. 기술자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중간 예비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기초공사의 검사라든가 준공전에 예비 검사가 꼭 필요하다. 그 기구가 設置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문을 열고 나오면 道路를 접합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도로가 굴착이 돼서 엉성하게 해 놓으면 누구나 기분 나쁩니다.

두번째는 요즘 차들이 정체가 심해서 道路가 좁다는 얘기를 하는데 市民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그 두 가지라고 보는데 도로가 좁아서 못 가는거야 돈이 없어서 못 넓힌다고 하지만 굴착해서 하는 것은 표시 없이 해 놔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심각한 問題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가오동에 가오 「아파트」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할 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컷트」기로 잘라가지고 공사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는 성의없이 엉성하게 해놔서 울통불통해요.

이게 今年에 40억인가를 들여서 해놓은 공사인데 이렇게 해놨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누가 욕을 안하겠습니까?

거기 내려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구청장한테 얘기하자니 市議員이 무슨 중부리는 듯 한다고 할 테고 市에 와서 얘기하자니 왜 그걸 구에 얘기안하고 市에다 얘기하느냐고 할테고, 이런 것은 무슨 기구가 있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15cm로 늘리고 안늘리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볼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가장

문제가 돈은 많이 받아놓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자꾸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받는 것은 좋은데 뒤에 확인하는 검사제도가 반드시 뒤따라서 公務員이 책임을 지든지 시공자가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독공무원이 우선은 책임을 져야 되지요.

○委員長 李秉奎 뭐가 잘못돼서 감독공무원 추적하면 그 사람이 밤중에라도 나와 볼거예요.

그런데 추적을 안 해요.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들이 검사를 하니까 반드시 검사하는 公務員이 첫째 責任을 져야 되지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區廳에서 하는 것은 市에서 전연 관계가 있는 것이고 검사는 區廳에서 하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공사 후에 한군데씩이라도 가서 검사를 끝내고 됐다 안됐다 좀 하든지 생전 가보지도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들도 나가서 보는데 110萬 市民이 다니면서 보는 것하고 저희들 한정된 인원이 다니면서 관심있게 보는 같은 公務員이라고 해도 도로과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지…….

○委員長 李秉奎 關係者が 검사를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다가서 검사를 해요?

그런 검사기구가 있어요? 없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공사 끝나면 검사하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있으면은 내가 지적해 줄테니까.

왜 이렇게 검사를 해줬느냐고 해보겠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말씀하신 가오동 신호등 공사…….

○委員長 李秉奎 그건 내가 예로 들어 봤는데 거기 가보면은 누가 봐도 기존 도로와 굴착복구공사 부분하고는 180도로 틀리게 불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예기고 그걸 가지고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검사를 하긴 했을텐데 무슨 검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감독 규정과 복무 규정이 있고 검사규정이 다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런게 있으면은 앞으로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관계공무원 처벌하겠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委員長 李秉奎 보수한다거나 신설하는 경우 지역별 날짜별 장소하고 적어서 저희가 물으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하게 그걸 좀 해주세요.

시민들의 가장 불평이 이겁니다. 이것을 없애야 市議員이나 公務員들이 일을 이제 좀 제대로 하는구나 하지 이것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근래에 한 것은 다시 시공시키세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市議員들이 또 公務員들이 구태의연하다는 질책을 안받습니다.

○李殷奎 委員 굴착복구를 할려면 事業計劃이 미리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사전에 어느 구역에 몇 m를 어떠한 조건으로 언제부터 파겠다 하는 것이 들어오면 나중에 設計에 의해서 몇 m도로를 얼마만치 포장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액수가 정해지고 복구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市에다 예치를 해줘야만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굴착을 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했을 때 복구공사는 總括해서 입찰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1억이라고 치면은 8,000萬원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을테고 7,000萬원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래서 그중 최소치에 의해서 낙찰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낙찰된 사람이 그 기간내에 공사를 했고 工事費는 1억짜리를 7,000萬원에 가지고 했으면 3,000萬원이 남는데 이 3,000萬원은 나중에 원인자에게 돌려 줘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입찰 잔액에 대한 것은 안 돌려 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設計는 1억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7,000萬원이 밖에 안들어갔다. 그러면 3,000萬원은 앞으로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市에서 總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업자가 공사를 끝냈을 때는 관에서는 마무리 검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계속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검사공무원이 지명을 받아서 검

사를 해가지고 검사필증 도장을 찍어줘야 그 다음에 事業費가 지출이 되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공정별로 확인을 한 후에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문제는 시공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公務員들이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공정별 확인을 직접가서 하는데도 이런 問題가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자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찾아와 가지고 우리 얼마큼 했으니까 얼마 달라고 하면 그냥 해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公務員 증원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철저히 다뤄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에서는 道路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道路가 불결하면 모든 것이 불결해 보이는데 지금 곳곳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있다고 보면은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行政을 잘해도 도로가 그렇다고 치면은 그 인상은 영원히 가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잘못된 事項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시공업체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만 하면 입찰보는데 그렇게 싸게 안할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서 파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서 파보고 할 테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도 다 보고를 받으면 알 수 있을 테니

까 그거 전부 한달에 한번씩 착공하는 것完了된 것 위치하고 事項을 전부 産業建設위에 제출해 주세요.

公務員들이 못하면 議員들이라도 해야지 어찌겠습니까?

○吳熙重 委員 복구비 내역서를 산정을 해서 굴착에 따른 복구비를 받고 市에서 입찰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차액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으며 그 차액이 생기면은 어떤 과목으로 경리를 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대로 두고 연말까지 그게 다 쓰이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들어가서 一般會計에서 그대로 그 다음해에 또 투자되는 걸로 재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월달에 공사가 끝났다면 거기서 정산한 금액이 5,000萬원 남았다고 한다면 다음 추경 때 그것을 다른 도로복구비에다가 豫算을 세워서 쓰는 겁니다.

○吳熙重 委員 그러면 차액이 계속 도로 복구비로 남아서 추경이나 차기년도 이월 시에도 도로복구비 잔액으로 이월이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委員長 李秉奎 다른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宣布합니다.

大田直轉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도로굴착복구 현장이나 신설중인 도로에 우리 委員들이 직접 나가서 살펴보고 검사를 했으면 하는

동의를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도로보수 및 신설 事業場에 우리 産業建設委員님들이 나간 보는 걸로 시찰하자는 동의입니까?

○徐允官 委員 시찰뿐이 아닙니다. 검사 까집니다.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나가면은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되지요. 다 포함되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감사기간이 아닌데 감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 하는데 양해하에…….

○徐允官 委員 감사기간이 아니라고 보면 다음 상위때 상임위 기간중에 얼마든지 나가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검사하고 시찰하고 하는 걸로 하고 이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동의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후 2시부터 續開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03分 停會)

## 2. 大田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時 35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上水道事業本

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上水道事業本部長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존경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금번 저희市에서 提案한 大田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저희 上水道事業本部는 淨水, 取水, 配水施設과 水質檢査裝備, 그리고 各種 송배수관 등 固定資産만도 約 930億으로 推定되는 막대한 110萬 市民의 資産을 管理하고 있을 뿐 아니라, 1日 생활용수 45만 9,000톤, 공업용수 2萬톤등 총 47만 9,000 規模의 용수생산 시설 용량을 運營하면서 110萬 大田市民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不足함 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本部에서는 어려운 與件속에서 上水道 施設을 지속적으로 확장 또는 추진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今年度 급수 성수기인 7~9月 1日 수도물 사용량이 39萬 5,000톤을 상회하고 있는 點이 시사하듯이, 都市發展에 따른 급수인구의 증가 또는 生活水準의 向上 등으로 生活用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견하여 87년부터 91년까지 5개년 계획을 대청호계통 第3次 즉 월평정수장 第1段階事業인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擴張事業이 준공되어, 92年 6월경 통수를 하게 되면, 1日 20萬톤을 增産, 市民 여러분에게 풍부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가동하게 될 월평정수장에 정수사업소를 新設하고, 異質的인 水道施設管理 業務와 淨水 業務를 1個 部署가 함께 관장하고 있는 등 일부 不合理한 現狀을 改善하고자 提案하는 것으로서 地方自治法 및 同法 施行令의 規定에 의한 先行節次는 이미 完了한 바 있습니다.

改定條例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하부기관으로서 大田市 서구 월평동에 월평정수사업소를 新設, 淨水와 取水 業務 그리고 수질보전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둘째,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淨水 機能을 分離하여 대전시 동구 송촌동에 송촌정수사업소를 분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新設하는 월평정수사업소의 소장직급은 지방 5급인 지방전기기와·지방기계기의 복수직렬로 보하여, 월평정수장, 복수정수장, 정립취수장, 서남부배수지, 중부배수지 등 사업장을 管轄토록 하고,

넷째, 현 수도시설관리소에서 分離 設置하는 송촌 정수사업소의 소장 직급은 지방 4급인 지방시설기정 또는 지방공업기정의 복수 직렬로 보하도록 하고, 송촌정수장, 중리취수장, 신탄진취수장, 신탄진정수장, 대덕정수장, 산성정수장, 관암배수지, 대흥배수지 등 事業場을 管轄토록 하였으며, 현 수도시설관리소의 소장 직급을 지방 4급인 지방시설기정 또는 지방공업기정에서 지방 5급인 지방수도토목기좌로 下向 調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大田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의 提案說明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專門委員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專門委員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雨錫 專門委員 李雨錫입니다.

大田 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사항 별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월평사업소에는 몇 명이나 정규인원을 市에 요청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市에서 요청한 인원이 월평정수장이 新設됨으로 해서 제가 가기 이전입니다만 75名인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 지금 승인된 것이 45名으로 내려 왔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市에서는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그것이 승인돼서 내려온 것이 45名이 내려온 겁니다.

○徐允官 委員 市에서 75名을 내무부로 요구를 했다가 요구를 했는데 내시받은 인원이 45名뿐이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인원이면 충분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충분하다고 하기보다는 현재 20萬「톤」의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60만 「톤」이 다 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을 최소인력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원래 事業所의 소장의 직급은 지방기계기좌든가 지방전기기좌 또는 지방화공기좌 말고 토목직이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기좌는 왜 빠져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上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이 여기 나와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정수시설 하에는 정수기능이 전부입니다. 그 시설을 갖추어 놓고 사업소를 운영하에는 많은 전기를 소요로 하고 전기장치가 돼 있고 또, 정수측면에서는 화공계통도 필요하고, 또 기계도 다분히 있어서 그 정수시설을 갖추어놓는 토목직이 소요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 事業所의 運營은 오히려 기계나 전기나 화공분야의 기능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서 타시도 공히 그러한 직급을 책임자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타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大田市도 따라가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분들이 시설을 하기까지는 공노가 지대한 분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사료가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責任者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소외당하지 않느냐!

또, 그런측면으로 볼적에 어떻게 보면 특정한 임무를 책임자로 앉히기 위한 임시방

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타 시도의 예가 그렇다는 거지 타시도의 좇아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없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運營하는 데는 역시 기계나 전기나 이런직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직급이 그렇게 된거다 이거지 타시도가 그걸 했기때문에 우리는 토목직을 해야될텐데 그걸로 한다 이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만약에 그러한 정수장에서 管理하는 사업지구내에 예를 들어서, 배수관이 터져서 사고가 있다든지 노후관이 발생이 돼서 긴급복구를 해야될 그런 상황 같은게 있을 때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내 그 事業所의 所長의 책임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아닙니다.

그 정수사업소하는 데는 정수기능만 하고,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관내에 관의 파손이라든가 관의 부설이라 하는 것은 지역사업소가 設置돼 있고, 또 수도시설 관리사업소 그것이 總括적으로 관장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별다른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大田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이의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관계로 10분만 停會하겠습니다.

(14時 55分 停會)

### 3. 都市計劃施設(高速道路)決定에關한 意見聽取의件

(15時 5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의석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都市計劃施設(高速道路)決定에關한 意見聽取의件을 상정합니다.

都市計劃施設 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코자 합니다.

都市計劃局長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都市計劃局長 李秉讚입니다.

존경하는 李秉奎 産業建設常任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많은 저희 都市計劃業務를 널리 해량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금번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사로부터 접수된 정부, 호남 고속국도에 대한 시설결정신청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는 69年 12月과 70年 12月 각각 建設 개통되어 정부고속도로는

현재 대덕구 문평동 금강 시계로부터 동구 신상동 시계까지 연장 19.2km로써 폭 23.4m~30.6m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호남고속도로는 회덕 「I/C」로부터 서구 원정동 시계까지 연장 22.1km에 폭은 2차선 13.2m로 이용 중 政府擴張計劃에 따라서 85年 9月 4차선 23.4m로擴張개설,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고속국도는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69年 12月과 70年 12月 2차선과 4차선으로 개설되었고 그후 73年 11月 30日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22.4mm를 12차선 폭 50m로 시설결정 변경하였으나 당시 韓國道路公社에서는 변경 결정 路線에 대한 지형지적도가 미비하여 지적고시 申請書를提出치 못하여 지적고시가 미결되었고 과거 대덕군 관내 일부는 88年 지적고시는 하였으나 노선 번호, 노폭등 재원이 누락되는 등으로 인하여 본 고속국도에 대하여는 都市計劃施設로써 사실상 실효 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 이를 재결정하여 당면한 '93 세계박람회장진출입의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인 회덕 「I/C」 改良事業과 날로 증가하는 고속국도의 교통수요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고 이후 고속국도의 중, 장기 개발 계획 및 확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韓國道路公社 충청지사에서 고속국도의 폭원을 50m로 계획하여 우리市에 申請, 이를 檢討하고 91年 11月 29日부터 91年 12月 14日까지 14日間 공람공고 하였으나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은 제시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본 안건의 처리절차는 시의회 의견청취후 大田直轄市 地方 都市計劃委員會의 자문을 받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적고시함으로써 결정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본 計劃이 조기 수립되어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 충족과 고속국도 開發計劃 및 擴張에 대비할 수 있도록 議員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며 특히 '93 세계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회덕 「1.C」 개량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93 세계박람회가 成功的인 行事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본 都市計劃 시설결정 “안”에 대하여 議員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雨錫 專門委員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李雨錫 專門委員 李雨錫입니다.

大田直轄市 都市計劃施設 決定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사항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委員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우선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기 전에 한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問題點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술전문대에 대해서 都市計劃 변경 청취건에 대해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 보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승인을 해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議會를 어떻게 생각하고서 도시계획국

장께서는 의회에다 한마디 통보도 없이 승인을 해줬는지 그 問題에 대해서 본 委員은 먼저 局長님을 성토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먼저 徐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局長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 부임을 해 가지고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절차상 상당한 미숙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委員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그 당시에 議會에서 “유보를 하라”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돼 가지고 저희가 都市計劃委員會에 의회에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가면서 상정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자연녹지로 두고서 있는 것이 나으냐? 학교용지로서 완전히 결정을 하는 것이 나으냐?” 이렇게 양분이 돼가지고 委員님들이 신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滿場一致 찬성이 안되고 133인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지역 18萬坪을 갔다가 자연녹지로 돼있는데 그 나머지 1萬 7,000坪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공원으로 묶었습니다. 공원으로 묶고 1만 7,000평정도만이 예술대학으로서 존치를 하자.

그래서 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그것은 어느 사람한테 팔아먹는다고 하더라도 行爲가 산 사람도 學校밖에 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次元에서 委員님들이 그러면 차라리 學校로 묶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委員會에서 그렇게 통과



가 되었습니다.

그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業務에 미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議會에 통보를 앓고 그냥 專門委員님한테만 事項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게끔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사항을 전부 문서로서 議會에 보고를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본 안전도 어떠한 形式的인 절차로 우리 市議會에 의견청취만 하겠다는 거 같으면 아예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다하는 애깁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검토결과를 갖다가 넘겨주면 都市計劃委員會에서 또 통과가 된다. 번복이 된다고 봤을때 먼저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局長님께서 여기에 부임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그러한 미수를 저질렀다고 하시겠지만 실무 실국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계셨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졸속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 議會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오는 거 아니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앞으로는 명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앞으로 보다도 거기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반이 조금 넘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조금 모자라는 사람과 시의원 전체 의견을 거기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한 두 사람 때문에 시의회에서 결정한 事項을 그냥 넘기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걸 그렇게 해줬는데 예술대학 허가를 해주는데 학교면 학교지 예술대학으로 못 박을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事秉奎 그러면 예술대학 한과쯤 하고서 다른 과로 죽 해서 다른 학교로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에도 그런적이 있잖아요. 전에도 해줬는데 팔아먹었잖아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때는 시설결정이 안됐을 때입니다.

지금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전자건은 결정이 안됐고, 이것은 완전히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전에도 해줬는데, 학교로 한다고 하고서는 「아파트」였지 않았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됐냐하면, 저희가 '86年度에 재정비하면서 책자에 주거지역 및 학교용지로 한다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事項이 '88年度에 「코오롱 아파트」에서 갈마동 군인 「아파트」로 넘어가는 사이에 20m도로가 하나 났습니다. 그런데 그 20m도로가 용지의 가운데를 차고 나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학교를 운동장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할 적에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基本 計劃이나 이런데서만 나와있고 施設로써는 즉, 再整備에서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를 하겠다하고서 시설결정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은 시설결정해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이 안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전에도 학교진다고 하고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파트」로 결론적으로는 짓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 것은 예술대학을 하는데 반대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이렇게 두고 그것을 변경해서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라는 얘기였지 우리가 根本적으로 예술대학을 한데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을 했으면 市에서는 여기 의견을 따라서 그것이 안되도록 해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물어 보고서 “응 그래? 그러면 저쪽 의견을 들어보자” 해가지고는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넘기니까 그대로 결정한다면 지금 徐議員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市는 시의원이 구성이 돼 있고 시의원은 100萬 市民의 대표인 만큼 법은 어떻다 하더라도 대표성을 중요시 여겨서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지 안되는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거 할거 없지 않느냐? 우리가 확고한 결정권 있는 것 이외에는 확고한 결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해 놓으면 다른데 가서 뒤집히면 시의원이 뭐하는 겁니까? 뭐하러 물어봐요? 이거.

그래서 徐允官 委員도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의견 청취하기 앞서서 局長께 분명히 답변을 받아 두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안 저지르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잘못이라기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분명히 委員님들께 말씀드릴시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말씀한 사항을 존중을 해서 都市計劃委員會 상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委員님 말씀하신대로 ‘너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냐’는 사실상 21명이나 委員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委員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도 委員님들이 말씀하신 事項을 존중히 여겨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다 이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잘못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徐允官 委員 그럼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문제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委員님들의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그 都市計劃委員會에다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겁니다.

그 문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局長님이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할 수는 없고.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자꾸.

○委員長 李秉奎 아니, 이것은 原則적으로 따져야지 다만.

○徐允官 委員 원칙적으로 따지면 의견 청취를 해서 보류가 됐으면 도시계획심의 위

원회에 넘어가서 번복이 됐다 이겁니다. 번복이 됐으면 당연히 번복에 대한 것을 우리議會에다 통보는 해줘야 될게 아니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제가 잘못된 事項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사죄를 드린다고, 의회에 통보를 정식적으로 안냈기 때문에 아주 사죄드립니다 하는 얘기는 아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徐允官 委員 잘못했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통보를 하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통보를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롯데 아파트」 부지가 애초에 시작되기를 그게 주거지 및 학교부지 시설이라고 한것 자체가 주거지만 넣으려고 드니까 問題點이 발생할 것 같아서 “학교” 자만 살짝 넣었다가 학교부지한다고 해서 했다가 그냥 주거지로 팔아서 「롯데 아파트」 부지로 만든게 市民들이 ‘눈감고 아웅한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되고 사실 그래요. 시를 행정기관의 하나로 市民들이 못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처음서부터 이거 주거지로 해서 「아파트」 부지로 팔아먹는다고 했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텐데 「테모」를 하든지 안된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텐데 사실은 학교부지로 한다고 해놓고 앞에만 문제점이 될거 같으니까 주거지 및 학

교시설 부지해놓고 사실은 주거지로 팔아먹는 거야 이말이에요.

이런 문제때문에 시행정을 住民들이 못 믿는 것이 계속 유발이 되면은 정말 뭐를 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都市計劃問題에 대해서는 하고자하는 일에 처음서부터 집중을 하셔야지 다른 일을 뻔히 市에서도 알면서 그게 사실은 학교부지로 했다가 장난칠려고 한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런거는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앞으로는 명심해서 都市計劃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거 청취만 하려면 여기다가 상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녜요?

청취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죄송스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법 第12條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듣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中央에 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같은 사례 즉, 그런 말을 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議會와 執行部와 이러한 의견 견해가 나오고 아까 그런 경우,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암담하다, 답답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으로 改正이 되든지, 改善이 되든지, 方案이 制度 改善이 되든지 해야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로 지금 충분히 얘기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議會에서는 그렇고 여기서는 그렇고 저기 가서는 저렇고, 저희도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

도 中央에 건의도 구두로 아직까지 정식 文書로 건의는 안했습니다만 구두로 그렇지 않아도 中央에 建議도 수차례하고 議會하고 執行部하고의 알력이 이걸로 인해서 알력이 돼있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 수차례 얘기가 되고 中央에서도 지금 얘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宋委員님 建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서울에 올라가서도 宋委員님에게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오늘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무자한테는 委員님 뜻대로 되게끔 해 달라! 또 우리 市長의 뜻도 그렇게 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中央都市計劃委員會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擔當事務官이 서울에 지금 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容潑 委員 이것은 市委員들 힘빼기 작전 아니에요?

○宋錫贊 委員 지금 高速道路 확장공사 하는 것은 지적고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시설결정은 구내 회덕「J/C」는 승인이 된겁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건설부 승인 말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적고시 말아서 사업시행허가를 말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저희가 접도구역이 얼마나 되냐면, 고속도로는 양쪽으로써 노변으로부터 50m까지 돼있습니다. 그런데 50m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번에 회덕「J.C」부터 유

성 오는 쪽으로부터 900m를 확장공사를 또 합니다. 지금 하는 것 말고.

왜 그러냐 하면, 박람회로 인해서 차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경부선하고 호남선하고 두개를 더 확장을 합니다. 그 구간이 이번에 1차선부터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6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도 이것이 실체가 되어 되고 또 50m한다 하더라도 접도구역이 양쪽으로 50m로 돼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도로공사에서는 交通量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결정고시를 말아가지고 할라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공사를 할 때에도 거기「그린벨트」지역이 있는 겁니까?

도로 가생이는 다「그린벨트」지역이지요? 대부분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린벨트」도 도로는 됩니다.

○宋錫贊 委員 도로공사한테 보상을 해 줄적에 제발 차등보상좀 하지말라고 건의 좀 해주시겠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문제는 기타시간으로 넘기고 이 문제를 결정을 합시다.

○金石種 委員 이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기이 얘기가 나온 거니까 뭔가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議會에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都市計劃委員會에서 결정을 졌다. 통과를 시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번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 두번은 이

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고 할때 어떻게 될거냐 하는 것은 물론 국장께서도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議會에 의견만 청취하고 저쪽가서 다 통과시켜버린다고 하면 한두 번은 그냥 입씨름을 하든지 어쨌든지 그냥 넘어갈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오는 問題는 우리가 “의견청취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썄요. 아까도 제가 金委員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러한 問題點이 앞으로 야기 안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전제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부한테 제가 저번에 건설부 올라가서 실무자 과장이나 그런 좌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유보도 한 두번이지 예를 들어서 유보를 하라 말라 하라 우리가 都市計劃委員會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통과가 된다고 할거 같으면 代表性이 있는데는 나중에 뭐라고 할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나중에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뭔가 해줘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石種 委員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사항은 못되고 여기서 결정지어야 될 사항은 아닌 걸로 보는데.

단 내가 봐서는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의회에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이번 그런 문제와 마찬가지로 都市計劃委員會에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그걸 거기서

통과시키기 전에 운영의 묘를 찾아서 議會에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이루어진 사항의 자세한 보고를 다시 올려가지고 “아! 그럴 정도면 여기서 의견을 모아 주는게 좋겠다”는 절차를 밟는다든지 뭔가 合理的으로 운영의 묘를 찾아야지 지금 “너희들한테는 의견만 청취하면 되는 것이고 결정은 計劃委員會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계속 간다고 하면 대단히 의회하고 행정하고 問題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深思熟考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기술만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학교야 어디다 짓든 안될게 뭐 있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사는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보면 대표성이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大田市民이 전부 반해하는데 건축 좀 하는 몇사람이 “옳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중앙집권을 지금껏 하다 보니까 다른 기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는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고 얘기를 빨리해서 바꾸도록 해서 거기서 오히려 돼야할거고 보고 있습니다.

○金容禧 委員 첨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전적 책임이 있는 事項은 아닙니다만 현재

의견청취를 했다가보다도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의결한 사항인데 타사회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하상가의 문제가 그런데. 그 문제가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화근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획관리실장에게 두 번이나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뭔가 달리 委員들하고 행정하고 의견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가야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가 원만히 되지 않고 자꾸 불씨가 계속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都市計劃局長이 참고로 아서가지고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질의가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宣布합니다.

본 都市計劃施設 決定에 關한 意見 聽取의 件을 마치겠습니다.

#### 4. 西南部生活圏基本計劃報告의件

(15時 39分)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西南部生活圏基本計劃報告의件을 상정합니다.

都市計劃局長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서남부 생활권 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報告書는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委員님들께서 현재 중간보고기 때문에 많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積極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西南部生活圏 基本計劃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향후 推進計劃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92年 1月달에 하고 또 앞으로 최종 基本計劃案을 '92年 4月달에 確定을 해가지고 성과품은 또 4월에 작성을 해서 이것이 완전히 수립이 돼서 確定이 된다면 이후의 計劃으로서 基本計劃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再整備해서 確定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委員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의견청취가 남아있고 또, 주민과의 대화 또한 자문 여러가지로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都市計劃이 잘됐다하는 그런 都市計劃을 서남부 생활권에서 해 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容禧 委員 그러면 1단계 사업은 대략 시에서 잡기를 몇 년도부터 시작에 들어갈 것이라고 豫想을 하고 계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92年度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年度 시작은 계획상으로 됩니다. 實質的으로써는 '93年 가야되지

않을까!

○金容濬 委員 그때는 보상문제도 거론이 돼야 되겠네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아까 1단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보상문제가 돼야 되겠고, 방식도 공영방식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느냐? 어디서 어떻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느냐 이것도 방식이 되겠죠.

○金容濬 委員 목원대학 부지 들어갈 때, 목원대학 이전할 때 거기는 언제서부터 1단계 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목원대학은 자기 네들이 생각.

○宋錫贊 委員 아니요. 그쪽 개발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2단계죠.

○宋錫贊 委員 지금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학교 이전시키는데 問題性이 있나봐요. 부지는 확보해 놓고 그러면 시차원에서도 교통난이라든가 그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쪽을 추진해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왜 1단계를 유성과 진잠을 두느냐 하면 진잠에는 기존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형성이 많이 돼 있는데 유성도 역시 시가지 되기때문에 저희가 따져본다고 해도 공영개발해서 맞아나갈텐데 지금 이쪽에 거기는 지금 자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檢討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2단계로 집어 넣었는데, 그런 問題點은 있습니다.

○金石種 委員 아까 서남부지역에는 오거리가 없는 길로 알고 있는데 既存에 나와

있는 오거리가 몇 개나.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10개로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체육고등학교 있는 데는 1단계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1단계.

○金容濬 委員 그럼 1단계로 들어가면 도로가 형성되니까 가능하겠군요.

별로 지장이 없겠군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말씀만 해 주세요.

(도면 설명)

○徐允官 委員 우선 도로가 30m도로가 10개든 100개든 좋습니다. 우선 기존 도심을 놓고 볼 때 우리의 道路網이 全國에 비해서 도로망이 떨어지지 않는데 교통체증의 심화는 엄청나게 악화돼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한 도로는 많이 뚫려있지만 한번에 흡수할 수 있는 수용도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비추어 볼 때 大田이 서해안 개발에 따른 중부권 성장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문화재원이 부족합니다.

도 재정기반도 빈약해요. 그런데 천안쪽이나 공주쪽, 논산쪽에 저러한 50m도로가 擴充이 됐을 때 그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충분히 흡수를 해서 나머지 간선도로로 충분히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50m도로가 3, 4개가 확정이 되고나면 똑같은 50m도로로 봤을 때는 역부족이 아니냐?

그리고 그 지점을 國際的인 회의장이라든가 종합수용시설, 유통단지, 행정시설 다 갖춘다고 하는데 그럴때는 엄청난 차량의 흡수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꼭 100m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는

냐?

좀 무리가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사이의 도로를 보면 과거 왜정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낸 도로입니다. 그 당시 불과 차 몇 대 안 다녔습니다. 사람 몇 안 다녔습니다. 지금에 와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마한 앞날을 바라보고 도로를 하나 건설했느냐?

그러한 걸 거울삼아서 그 지역만큼은 우리 大田에 마지막 보루라는 서남부생활권 개발만큼은 꼭 100m도로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2011年度까지는 50만이고 2030年度까지는 100만 인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年度에는 300만을.

○委員長 李秉奎 300만 인구를 보고서 계획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죠.

거기다 100만을 수용하는 것은 開發을 유보지같은 것을 다 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50만을 집어넣고 2011年度까지는 그리고서 2030年度에는 여기다 50만을 더 집어넣으면 100만.

○委員長 李秉奎 그래서 100만이 수용할 수 있는 道路網을 하는거다 이거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죠.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거기가 100만이고 그럼 이쪽 기준은 그때가면 몇 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200만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경우 거기 100만 인구의 차와 이쪽 200만의 몇 분의 1이 될지 모르지만 生活로 인해서

옆에가 크게 있으면 그 100만 있으면 거기에 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쪽에 200만 인구의 차가 어떨때는 그리로만 몰릴 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 인구지만 옆에가 200만이 있을 저거에 도로망은 약 200만 인구의 도로망을 해야 된다는지 그런것은 고려 되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돼서 된 것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問題는 지금 가장 문제가 人口가 자주 증가함에 따라서 어느정도의 인구가 증가하면 막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 다른 거야.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동서로 나가는 도로가 50m가 네개, 기존에는 시내북판에.

○金容禧 委員 남부순환도로까지 하면 6개 되요.

○委員長 李秉奎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이 한 것 같은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도면설명)

○委員長 李秉奎 도시계획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해야 할 문제니까 대충 이것으로 끝내죠?

(「예」하는 委員 있음)

○李殷奎 委員 남부생활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히 들었는데 大田市 전체에 대한 都市計劃은 언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



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西南部生活圏 基本計劃報告의件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나머지 마치고서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속하겠습니다.

##### 5. 1991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採擇의件

(16時 30分)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1991年度 12月 3日부터 12月 7일까지 5日間 실시한 1991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結果를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第5次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5項 1991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위원님이 안계셔서 李殷奎委員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지방자치법 第36條 및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가 '91年 12月 3일부터 12月 7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報告書는 당위원회가 1991年11月 21日 第6回 임시회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의결하였던 감사계획서에 의거 작성

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방금 李殷奎 委員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委員님들 감사때 지적하신 사항이 미비한지.

○徐允官 委員 미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삽입을 시킬 것 같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 건이 빠져 있는데.

○委員長 李秉奎 뭐죠? 그게.

○徐允官 委員 오정동에 송유관 폐지한 것을.

양쪽 4m도로 8m를 환지해 준거 있잖아요? 환원시켜준거.

그 건을 양 도로 4m사이 8m를 환지를 해 주면 꼴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각 委員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빠져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5項 1991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은 李殷奎 委員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지난 7月 8日 大田直轄市 議會가 開院된 이후 우리 産業建設委員會가 다른 委員會보다 회의 일수가 제일 많습니다. 회의 일수가 제일 많다는 것은 일을 제일 많이 하였다는 뜻이 되겠지요!

모두가 委員님들의 積極的인 협조의 결과  
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로써 끝나고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우리 110萬 市民을 위하여 우리가 무  
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  
하시고 積極的인 협조를 바랍니다.

今年度は 委員 여러분의 積極的인 협조가  
있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이  
루어졌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  
시길 기대하면서 委員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第6次 産業建設委員會를 마치겠  
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2分 散會)

---

○出席委員

李秉奎 委員, 吳熙重 委員, 金石種 委員  
李殷奎 委員, 徐允官 委員, 宋錫贊 委員  
金容濬 委員

○出席公務員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